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7월 19일 (제105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당신 집에 누가 사는가?

집은 사람의 돌봄을 받는다. 집을 잘 가꾸면 아름다운 집이 되나, 돌보지 않으면 폐가가 되고, 을씨년스럽게 된다. 우리의 육체도 잘 가꾸면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성전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그러나 방치하면 집이 쓰레기장이 되어 벌레가 우글거리듯 귀신이 우글거리는 집이 된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눅 11:24).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가꿔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까?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내 집(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막11:17)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성전 된 우리의 몸도 기도로 닦고 가꿔야 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시고 대신 귀신이 득실거리는 귀신의 집이 되고,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만다. 빈집에 거미줄이 걸리고, 벌레가 사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눅 11:24~26). 귀신이 사는 집이 어찌 잘 될까. 삶이 피폐할 뿐이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이 거하시야 할 성전이다. 그러므로 추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결단했으면 밀고 나가라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이며 지금은 존재하는 현재’라는 말이 있다. 결국 인간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지금을 사는 것이다. 내일은 능력 밖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일 하며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후회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뜻을 정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셨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다음

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무조건 두 시간 기도하고, 집회 때면 예닐곱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식장에 주례를 서러 가서도 항상 그래왔고, 비행기에서든, 목욕탕에서든 항상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아주 조직화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성공자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하라’ 촉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아와라’(마16:24),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눅14:26)고 무서운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 그렇게 살았나?’ 나 역시 예수를 믿고 부모형제를 떠나 철산리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인천 마가다락방으로, 송의동 성전으로, 서울 잠실 올림픽



목사님의 목회 36년은 결단의 연속이었다

에 심판이 있다(히9:27)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영원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내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능력 밖이기 때문입니다. 잠언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0).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앞서 늘 직원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문자를 보내며 독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단에 설 때마다 오늘이 설교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 명이 모였든,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이 모였든 상관하지 않고 그 순간

다. 뜻을 정하고 노력하며 준비하다가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창12:1)고 명령하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다 늙어 무릎도 시원찮은 판에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창12:2~3)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단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픽공원으로, 그리고 세계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너는 본토를 떠나라, 부모형제를 떠나라’, 순종하고 결단하여 떠났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로, 환경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습니다’ 하며 결단하지 못하고 내일, 내일 하며 미룹니다. 그러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차 떠난 다음에 손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늘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겐 때늦은 후회만 함께 할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달면 삼키고 쓰면 벌지 말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38~48)

토사구팽(兔死狗烹), 이는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가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한다'는 뜻의 고진감토(甘香苦吐)와 같은 뜻입니다.

토사구팽은 현재 정치나 비즈니스 세계나 인간관계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냉정하게 버리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끝에는 복수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끼야 죽으면 끝이지만, 토사구팽 당한 사람은 가만 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지목하니 모세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손사래 치며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함을 나타내기 위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잘 쓰다가 필요 없다고 내치는 순간, 그 사람이 뱀이 되어 나를 물어버립니다. 요즘 연인들이 헤어지면 원수가 되어 상대와 가족을 괴롭히고, 집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건지기 위해 애쓰셨던 것처럼,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수제자 삼은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심비에 새겨라

왜 사람을 버릴까요?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물 한 컵을 떠취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건만, 자신을 취직시켜준 사람, 창업할 때 함께 고생한 사람,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성도들, 단칸방에서 함께 고생하던 아내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치는 겁니다. 요즘 여자 측에서 황혼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내들이 이제 살만 하니까 돈 못 버는 남편 삼시세끼 밥해 주기 귀찮아 그런 겁니다. 맘대로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어라 젊어서 일해 가족을 먹여 살린 남편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왕인 사울이 어떻게든 감당해야 할 문제를 어린 다윗이 단숨에 해결해준 것입니

다.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처음에는 사울도 감사해서 그를 사위 삼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시기심이 발동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자살로 마감되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17:13).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은혜를 알기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는 손대지 않았고, 친형제 이상이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생

존해 있음을 알고는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을 돌려주고,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삼하9:7). 또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피난길에 있을 때 자기에게 식량을 지원해준 바실래라는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아 그의 아들을 나중까지 쫓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바실래를 잊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왕상2:7).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함구하고 옥으로 향했던 것은, 그간 자기를 믿고 가정 총무로 써준 보디발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토사구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구,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보십시오. 직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더니 취직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까? 집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니 이제 는 아예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사

는 것... 이것이 토사구팽입니다. 누가 복음 14장에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장가들어서' 잔치에 못 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줬는데요? 어려웠던 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응답 받아 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사람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팽(烹)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토사구팽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

려

분 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배은망덕하면 나뉘고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의 수평적인 관계에 근본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道)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인배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고후 6:11~13).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손을 품었다가 내보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했고, 그 손을 다시 품으니 그 손이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잘못을 했어도, 조금 못났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쓰다 병에 걸렸어도 품을 줄 아는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화가 치민 그 사람은 돌을 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면 켈수록 돌더미는 너무 커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돌을 캐지 말고 돌부리를 흙으로 덮게나."

그럼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남의 죄를 감춰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그래야 합니다.

열 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적을 두지 말라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윤희가 젊은 시절 시골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어느 집 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인집 아이가 마당에 나와 커다란 진주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리니 옆에 있던 거위가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후 주인은 윤희가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결박 지어 아침이면 관가에 고발하러 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저 거위를 내 곁에 매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구슬이 거위의 배변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본 주인이 부끄러워 사죄하며 "어제는 어쩌서 말하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그 왈, "만일 어제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 배를 갈라 구슬을 꺼냈을 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임금 귀에까지 들렸는데, 임금은 이런 자가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며 그에게 도승지라는 직분을 하사했습니다. 잠시의 욕을 참고 변명하지 않아 거위를 살린 윤희, 그런 마음이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당부할 말은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를 쓰면 과거 그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개가 왕을 살린 일을 왕이 뒤늦게 일기를 보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한 행적을 기억하여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기장에 우리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기를 씁니다. 가끔 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때 그랬지.' 하며 은혜를 곱씹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적을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의리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진정한 변화의 시작과 발전

다 핑계입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가 싫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변화보다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동물인가 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히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 수가 5%를 넘지 못하는가 보다. 사실 변화를 불편해하는 것은 내면 깊숙이 보면 게으름의 산물이다. 목사님이 주신 교훈대로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부지런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한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기 귀찮은 일, 하기 힘든 일을 시작할 때 그날부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가장 하기 싫으니?” 하고 물으면 99%가 “공부요.” 한다. 책을 다시 붙잡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도전하여 풀기 시작하면 그 학생의 변화를 주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든가요?” 하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기도요.” 하신다. 그분들도 오늘부터 무릎 꿇고 힘들어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너무 버거웠는지, 하고 싶지 않았는지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나가려 했다. 결국은 하

나님의 진노하심에 꼬리 내리고 순종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후 40년간 하나님의 수 없는 기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온 인류에 전하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다. 에스더도 피하고 싶은 일을 모르드개의 강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행동으로 옮겨 유대민족의 대학살을 면케 하고, 오히려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르드개의 대적 하만의 모든 지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심히 두렵고 고민되어 죽을 만큼 힘들어하셨으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

평소에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그러나 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눈 질끈 감고 한번 시작해보라. 그러면 묘한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보라. 멋진 변화의 열매를 따게 되어 꾸준히 성장 발전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평소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담대히 도전해보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기적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속하면 기적의 열매를 따는 놀라운 일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교회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 하나가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 것이기에, 목사님은 떠나는 그분을 위해 진심을 다해 축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격이 안 맞아서요’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을까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인데요. 연애할 때는 그 성격이 멋지고, 개성 있고, 화근해서 좋았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절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애인 집이 멀어도 콧노래 부르며 갑니다. 애인이 잘못해도 애교로 보이고 ‘그래도 사랑한다’ 합니다. 늦은

시간에 불려도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서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멀다, 예배가 길다, 의자가 불편하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신앙이 식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다 귀찮아지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끌보기 싫거든요.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겨도, 예배시간이 컵라면 끓이는 시간 정도로 짧아져도, 의자가 최신형 안마의자로 바뀌어도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핑계는 다른 핑계만 남게 됩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부부가 이혼하듯 하나님과 이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중심편집실



:: 진리의 학당 ::

하나의 구음과 언어 (창세기 11:1~9)

하나님은 품속에 독생하신 인자에게 기쁨을 부어 이 땅에 보내려 하셨으니 그의 길이 곧 시온의 대로다(시84:5). 그가 오셔야만 인류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생과 복락의 길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과는 상관도 없이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려 할 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창11:4~6). 구음이 하나여서 모든 동물들도 방주에 들어가 홍수를 피했으나, 타락한 사람은 언어가 하나이므로(창11:1) 사람의 언어가 마치 창조자처럼 지배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경영함으로써 인류의 지를 통합하고 이끌며, 설득하여 협동하게 하고 통치하며 고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므로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를 했다(창11:1~6). 이로써 인간은 당연히 멸망한다.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인간의 언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불가능하고 무력하게 하고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구음과 언어를 흠으셨으니,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관자가 없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하여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은총이요, 긍휼이다.

하나님의 언어에는 영감이 있고 그 언어로 인류를 이끌려 하셨으니 인간 언어로의 통치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어가 진리요, 우리는 진리에 복종한다. 진리만이 믿음의 언어요 능치 못함이 없고(눅1:37), 능력의 언어로 하나 된 구음이요 귀신들과 만물도 이에 복종한다(막1:27).

다른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만 뱀이 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니까 타락하고 저주 받는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쌓게 한 탑이 아니다. 이게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철저하게 반대하고 사람의 소리로 통치한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인류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신을 부정하는 사고체계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

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10:4~6).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죄를 주고 영혼을 사셨고,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모인 자들을 주님의 몸으로 인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다(행20:28). 교회의 외형은 인간의 연합체이나 이를 구성하는 힘과 권위는 성령이시요, 성령은 자기의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보호하신다. 감독자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구성하는 그분의 지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못하니까 영적 사람 되게 하셔서 진리를 복종케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으니,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언어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복종케 하심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언어, 지식, 여론이나 인간의 의견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일치를 이룰 수 없다(롬1:18~32).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성품, 주인의 방향이 다 그 말씀에 있다. 이를 성령으로

아는 것을 진리라 한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시려고 그가 다 만드시고 그가 다 기르시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주인 되고 인간의 언어가 주인노릇 할 때 그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다. 인간의 언어가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빌2:12~14).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다. 사람의 언어로 모든 육신을 주관할 수 있을지라도 구원하지 못하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천지의 주재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가 주인 되시어 나를 사용하시게 함이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자손들아!

박덕규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의 속성

이곳 일본에도 조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죄의 속성과 참 똑같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듯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철저히 하게 방역하듯이 죄로부터도 철저히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인 듯합니다. 하나를 통과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고, 여길 건넜다 싶으면 그곳보다 힘든 무언가가 계속 다가오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평안한 인생은 절대자의 도움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읍시다. 아니,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게 합시다. 내가 주님 손을 잡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장애물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천성이 착해서, 인내력이 대단해서 험한 세월을 잘 견뎠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 때도, 감옥살이 때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힘들 때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는 교만과 고집과 욕심 많은 우리

의 자아를 깨트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불가마를 통과해야 아름다운 도자가가 탄생하듯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은 고난의 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신앙의 여정에서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봅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터널의 끝, 고난의 끝, 코로나의 끝 또한 반드시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5:13).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Good News

수사와 형사재판의 목적은 범인의 발견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운명을 하면 그 순간 중단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재판중이면 공소기각 결정이 나고, 수사 중인 사건이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계 스타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CCTV는 피해 다닐 수 있고, 승소를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 믿고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후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며 노후준비를 하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주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유학원 업무를 시작한 후 잦은 해외 출장으로 매주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해외에서 드렸던 습관대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더욱이 눈의 망막이 변성되어 운전을 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중교통으로 두 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성령의 간구함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서 조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오 집사, 다시 비행기 뜨면 또 해외로 나갈 거잖아.”, “네.” 목사님은 7시간가량 되는 긴긴 비행의 시간은 멀다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내달려가면서 교회가 멀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교구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찡~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웬오신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두 시간 거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두 시간 따위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어느덧 주님을 향한 사랑에 타성이 생겼고,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지게 된 주일성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요일예배는 더더욱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고 살았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었다. 주님 향한 사랑과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무릎에 다시 힘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었다. 변명과 게으름은 이렇게 저렇게 교회와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든다. ‘뭐 어때? 인터넷 예배도 예배인데.’라는 겁 없는 생각도 하게 한다. 사탄의 속살거림에 회유되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아깝고 안타깝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고비를 넘고 다시 주님 향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할 뿐이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야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과 물질을 향하여 달음질했던

나에게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소득도 줄었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은 돈보다 더 큰 선물이다.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 평안의 삶을 살겠노라고 수십 년을 기도했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얼마인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보낸 시간들이 많이 후회가 된다. 그 사이 아파트도 좋은 가격으로 팔렸고, 유학원 업무가 많아져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날마다 시마다 돈, 돈, 돈으로 가득했던 생각을 이제 탈탈 털어내려고 작심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서 건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뵈 수 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새삼 되새겨본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멋진 오누이

훤칠한 키에 빼어난 호남형이었던 오빠는 해양대학교 시절 기관사로 오대양을 누비며 큰돈을 벌었다. 졸업 후 건설업에 뛰어들면서 2년 만에 시골집을 현대식 가옥으로 부모님께 지어 드렸고, 뒤질세라 남동생도 대학 졸업 후 병원에 취업해서 동네에서는 아들 청찬이 자자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용산에서 현병으로 군 복무했던 오빠는 외출과 외박을 나와 함께 보냈고, 밤새도록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던 둘도 없는 오누이 사이였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을 모두 나에게 맡겼고, 그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쇼핑도 하며, 멋진 오빠와의 데이트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었다. 그런 오빠가 결혼 후 변했다. 첫 명절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고, 급기야 병든 노모를 양로원으로 향하게 했다. 바쁜말 한마디 할라치면 시누이 노릇한다며 오히려 분을 내어, 그래서 나는 마음을 비워줬다. 곧 관계도 멀어지고 연락도 두절됐다. 십수 년이 지난 후 예수를 믿게 된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빠와 화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렸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머니 소천 이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유산문제가 불거졌다. 4형제에게 균등해야 할 분배를 오빠는 장애인 언니를 제외하고 3등분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주변에서는 장애인 언니와 어머니를 모신 나에게 더 줘야 한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난 흔쾌히 오빠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유인즉 오빠와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빠와의 빚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아낌없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예수를 전했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보던 올케언니가 기적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빠를 전도하고 있다며 근황을 전해주었다. ‘거룩한 바보’, 영혼 구원을 위해 세속적인 손해를 스스로 감내하는 자들에게 붙여진 별칭이다. 오리를 가져 하면 십리를 가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겹옷도 주는 거룩한 바보! 그래서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손해인들 대수로울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바보가 좋다. 추성숙 집사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